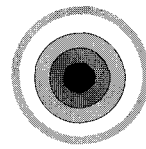


News Review

● 정부·단체 ●



경기 양극화 심화 통계청 발표, 경공업 1.1% 감소

국내경기가 빠른 활황세를 지속하고 있다.

지난해 이후 기업의 시설투자와 수출이 호조를 보이면서 국내경기의 활황국면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지표상에는 나타나고 있으나, 경공업 부문은 지난해 동기 대비 오히려 감소하여 경기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통계청이 발표한 4월중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 4월중 산업생산은 13.7%증가, 2월 이후 석달간 두 자리수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경공업 부문에서는 1.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공업의 경우에는 1992년의 경기 침체기간 동안 극심한 부진을 겪고 재작년부터 전반적인 경기가 회복되는 가운데서도 생산이 감소하는 현상을 보였는데, 94년도에는 음식료 산업이 호조를 나타내어 다소 회복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신발, 섬유, 의류, 피혁 산업 등은 생산정체 내지 감소에서 벗

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국내의 경제 여건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산업구조 변화의 속도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으로 파악할 수 있는데, 80년대 말

이후 이어져온 국내 임금의 빠른 상승추세 등이 대체로 노동 집약적인 경공업 부문의 경쟁력 약화, 사양화를 촉진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 산업 활동 동향

(전년동월(期)비·%)

구분	94년		95년				
	연간	12월	1월	2월	3월	4월	
생 산	생 산	11.1	12.1	8.9	19.3	14.4	13.7
	중 화	13.9	15.1	12.4	22.9	18.5	19.0
	경 공	3.1	4.4	▽0.8	9.8	3.5	▽1.1
	출 하	12.0	12.9	11.8	20.0	14.5	14.1
	재 고	6.7	6.4	3.8	3.8	5.2	7.2
	평 균 가 동 물 생 산 능 력	82.7	85.5	85.0	80.9	84.6	82.7
소 비	도·소매 판매	8.0	6.6	11.2	6.0	6.7	7.7
	내수소비재출하	9.2	4.2	11.9	16.3	9.7	8.0
투 자	국내기계수주	26.9	21.6	35.8	58.8	42.9	28.5
	기계류 수입액	37.6	72.7	21.6	68.8	56.3	27.5
	국내건설수주	11.9	27.2	6.6	4.4	26.0	35.8
	건축허가면적	▽1.3	28.0	8.9	17.8	19.0	45.2
고 용	경제활동참가율	61.7	60.5	59.7	59.9	61.2	62.2
	취업자증가율	3.0	2.3	2.8	2.8	2.6	2.4
	실업률	2.4	2.1	2.3	2.6	2.4	2.1
	(계절조정)	(-)	(2.2)	(2.0)	(2.1)	(2.1)	(2.0)

※ 재고는 기말수치임.

한국 경기 종합 지수

(전월비, %)

구분	94.11	12	95.1	2	3	4
선행지수	0.9	1.1	0.7	0.4	0.9	1.2
동행지수	1.1	0.9	1.3	0.1	0.6	0.1

외국인력 2만2천명 도입 확대 통산부 확정, 중소기업 인력난 완화 기대

통상산업부는 지난 5월 29일 국내 기업의 인력난을 완화시키기 위해 금년중에 2만2천명의 외국인력을 도입, 국내산업현장에 배치키로 하고 산업현장에 배치된 후 현장이탈율이 적은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베트남 인력을 우선 도입, 빠르면 금년 7월경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통산부가 확정한 인력추가도입 계획에 따르면 중국 2천명, 필리핀 1천5백명, 베트남 5천명, 인도네시아 7천명 등을 추가 도입하여 국가 및 지방공단과 농공단지, 외국인 전용공단 입주업체, 1백 PPM운동 참여업체 등에 우선 배정키로 했다.

아울러 외국인 연수생 국내체류 기간을 1년으로 한정하고 1년간 연장할 수 있는 현행제도는 그대로 존속시키기로 했으며, 이와 함께 작업장을 벗어난 연수생들과 이들을 불법 고용한 업주들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중소기업 세계화 추진대회 정부, 자금, 인력 최대지원 노력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회장 박상희)는 지난 5월 1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박재운 통산부 장관을 비롯하여 중소기업 관계자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소기업 발전에 공이 큰 중소기업 유공자 훈·포장 및 표창식, 중소기업 세계화 추진선언, 소년소녀 가장돕기 결연식 등의

순으로 「중소기업주간」 행사를 치렀다.

이날 대회에 참석한 박재운 통산산업부 장관은 치사를 통해 「산업경쟁력은 산업의 뿌리인 중소기업에서 비롯된다고 강조하고, 중소기업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 수 있도록 자금과 인력을 정부가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지난달 10일 확정한 자본재산업 육성책도 경쟁력있는 중소기업을 키워나가는 획기적인 대책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열린 훈·포장 및 표창식에서는 환경오염 방지 염색기술 개발에 기여한 공로로 국제염직의 이승규 사장이 최고영예인 금탑산업훈장을 수상한 것을 비롯, 총 9명이 산업훈장을 받았는데, 한국골판지포장업체의 삼보판지공업(주) 류중우 대표이사가 석탑산업훈장(관련기사 115P참조)을 수상했다.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 담당

지난 5월1일 산재보험업무가 노동부에서 「근로복지공단」으로 이관되었다. 이번 조치는 경제·사회 환경변화에 부응하여 동 보험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이를 계기로 근로자와 경영자들은 보다 친절하고 질 높은 보험서비스를 제공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업무를 새로이 담당함과 아울러 보험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산재보험업무를 전면적으로 전산화함으로써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하고, 보험료 징수 및 보험급여 지급 등 업무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신속·정확한 보상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지금까지 지방노동관서별로 행하여오던 의료기관의 진료비 심사업무를 전산문서교환방식을 활용하여 공단본부에서 통일된 심사기준에 따라 일괄심사토록

보험업무 담당기관 변경내용

구 분		현 행	변경('95.5.1)
보험요율 고시 보험급여기준 결정		노동부장관	〈현행과 동일〉
보 험 업 무 내 용	사업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험관계성립신고서제출 •보험료 보고서 제출 •보험료 확정 정산 	지방노동관서 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
	근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요양신청서 제출 •각종보험급여 청구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지방노동관서 산재심사관 산재심사위원회 〈현행과 동일〉
	의료기관	진료비청구 및 지급	지방노동관서 근로복지공단

함으로써, 심사업무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기협, 유통회사 설립추진
중기제품 전시판매장 종합관리**

기협중앙회는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을 전국 12개 시도로 확대 운영하는 한편, 이 판매장들을 관리 운영할 유통회사를 별도법인으로 설립할 계획이다.

기협중앙회는 서울 여의도 안보전 시장 부지에 중소기업전용전시장 건립을 서울시와 최종합의했으며, 각 시·도에 백화점 형태의 중소기업전용 판매장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고, 기협중앙회 자회사 형태로 이들 판매장을 종합관리할 중소기업 유통회사를 설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하여 박상희 기협중앙회 회장과 최병렬 서울시장은 지난달 29일 서울시청에서 협정서 조인식을 갖고 기협중앙회가 전시장을 설치·운영하고, 서울시는 전시장부지를 무상 제공하며 이에 따른 각종 행정지원을 담당하게 된다.

또한 삼성물산이 분당 서현역사에 짓고 있는 백화점 가운데 1천평을 중기 전시장으로 무상제공하겠다고 최근 제의해 왔다고 밝히면서 구체적인 운영방안 등 세부사항을 토의 중이라고 밝혔으며, 대구시를 비롯한 몇몇 시·도가 소유하는 유흥지를 중소기업제품 판매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는 뜻을 전해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물류표준화는 포장치수 표준부터
대한상의 주최 「물류표준 활성화」 세미나 성황**

물류표준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업은 물론 정부 및 관련기관에서 적극 나서 추진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지난 5월 30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주최한 물류표준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에서 물류표준의 개념은 개별기업이나 업체차원에서 표준화보다는 전체 국가 사회적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제품에 맞는 포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포장에 맞는 제품 치수를 만드는 개념으로의 발상의 전환이 주장되었다.

(주)미원의 김일만 물류지원 실장은 표준펠리트 도입 추진사례 발표를 통하여 기업은 국가가 정한 표준 펠리트 사용에 적극적이어야 하며, 정부는 기

업의 물류표준화 실천에 따른 세제적, 행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홍성욱 교통개발연구원 화물교통 연구 실장은 물류표준의 보급은 민간자율을 기본으로 하되 국가에서 표준화를 추진, 표준화가 기업의 이익이 된다는 것을 인식시킬 수 있도록 홍보 및 표준장비에 대한 운임할인 등 인센티브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순천향대학교 윤문규교수는 「유니트 로드 시스템(ULS)이 구축되면 기계화된 하역작업과 일관된 수송방식이 가능해져 화물파손이 방지되고, 화물적재가 신속해져 수송회전율이 향상돼 물류비용 절감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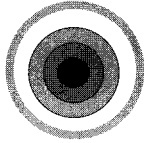
**한국골판지포장조합 군납자격 획득
군수품 포장용 골판지상자 단계 납품 추진**

골판지포장조합에서는 국방부 조달본부로부터 군납자격을 획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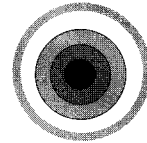
국방부의 골판지상자유 품목은 그동안 일반경쟁 물품으로 분류되어 군납자격을 갖춘 업체에 한하여 공개경쟁으로 입찰되고 있었으나, 금번 한국골판지포장조합의 군납자격 취득에 따라 골판지상자류의 수의계약 길이

열려, 종래 경쟁체제에 따른 투매낙찰 경향을 불식시키고 조합에 의한 품질 보증으로 적정가격 공판 납품이 가능하게 되었다.

한국골판지포장조합은 지난 4월 29일 군납등록을 신청하여 자격을 취득하게 된 것이다.



News Review
● 業界動向 ●



**대우, 중국에 제지공장 건설계획
연산 3만 5천 M/T, 아트지 생산**

중국에 제지공장을 건설하기 위한 (주)대우와 무림제지(주)의 기술협력 사업이 1년여의 진통끝에 실현될 전망이다.

(주)대우가 추진중인 「牡丹江프로젝트」에 기술파트너로 참여하는 무림제지(주)는 중국측의 투자조건이 마무리됨에 따라 곧 착공식을 갖고 중국 흑룡강성 牡丹江시에 연산 3만5천 M/T규모의 아트지 생산공장건설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자본금 1천7백만\$로 설립되는 대우제지유한공사에 대우가 60%, 현지 파트너가 40%의 지분을 보유하게 되는데, 내년 상반기 가동시까지 총 4천 5백만\$이 투자될 예정이다.

합작 파트너인 牡丹江 造紙廠은 지난 51년 설립된 국영제지공장으로 종업원 4천여명에 연 1천 6백만\$의 매출규모를 보이고 있다.

당초 지난해 11월 기공식을 갖고 올 9월에 가동될 예정이었던 이 프로젝트는 그동안 지분조정을 이유로 중

국측이 투자계획을 확정짓지 않아 계속 연기되어 왔다.

대우측은 현재 중국이 종이생산에서 세계 4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1인당 종이소비량은 세계평균의 1/4수준에 머물러 있어 향후 경제성장에 따라 고급 인쇄용지 수요가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제지설비, 산·학·연 공동 개발
해외수출겨냥 수출 전략산업화 계획**

제지설비의 국산화율을 제지선진국 수준으로 제고하기 위한 산·학·연 공동개발사업이 본격화 되고 있다.

이 사업의 총괄 추진기관인 생산기술연구원에 따르면 정부의 중기중점사업으로 지정돼 지난해 4월 착수한 펄프성형기 등의 개발에 이어, 고성능 공기압식 헤드박스 개발 등 15개 품목을 새로 진행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산·학·연 공동개발사업이

추진되는 것은 우리나라의 종이 생산량은 연간 3조원규모로 세계 10위권 안에 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지설비 기술은 크게 부실하여 중요 설비를 외국기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제지설비는 주문형 대형장치 산업임으로 업체 독자적인 기술개발에는 투자위험성이 큼으로, 제지업체와 설비업체간의 공동개발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국내 제지업계는 물론 2000년 이후 동남아시아의 예상수출을 감안하여 수출전략 업종으로 육성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조일제지 등 업계 관련사 기업공개
7월초 공모청약 접수 예정**

증권관리위원회는 6월 19, 20일 조일제지, 동일제지 등 5개사를 기업공개 예정으로 오는 7월초 청약을 거쳐 8월 초순경 상장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조일제지(대표이사 배영환, 이경우)는 94년도 매출액 498억원, 자본금 56억원으로 공개규모는 62.4억원이며, 동일제지(대표이사 정동섭, 정영

섭)은 '94년도 매출액 322억원, 자본금 52억원으로 공개규모는 40.5억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서 골판지포장업계 이미지제고를 위한 홍보 및 정보교류 등에 기여하는 바가 큰 골판지 포장관련 상장기업은 골판지원지부문에 아세아제지, 온양펄프, 신강제지, 조일제지, 동일제지 등 5개사 골판지 포장부문에 한국수출포장, 태림포장, 대영포장, 태영판지 등 4개사이며 그외 장외 등록법인으로는 대양제지, 신대양제지, 영풍제지, 삼보판지 등이 있다.

**폐지 탈묵 신기술 수출
화학연 지난5일 미국 EDT사에**

한국화학연구소(소장 姜博光)는 폐지재생에 응용되는 탈묵(脫墨)기술을 개발해 이를 신기술 창업회사인 미국 EDT사와 공동으로 상업화하는 협정을 지난 5일 파키처에서 체결했다.

화학연구소측이 이번 협정에 따라 특허실시권 및 관련기술을 EDT사에 제공하고, 기술료 5만\$와 매출의 1%를 7년간 경상기술료로 받기로 했다.

폐지탈묵재생기술은 폐지로부터 고품질의 재생펄프를 제조하기 위해 인쇄된 잉크를 빼내는 기술로 종래 탈묵기술은 양젓물 등 화공약품 등을 이용하기 때문에 종이 섬유질의 감소와 폐수 공해성에 단점이 있었으나, 개발된 탈묵기술에서는 효소를 이용 탈묵함으로써 공해유발을 최소화하고 폐지 이용율을 10%이상 증가시키는 등의 장점이 있으며, 기존탈묵제로 탈묵이 어려웠던 복사용지, 레이저잉크 폐지 등에도 쉽게 탈묵이 가능하다고 밝혔

다.

또한 이 기술은 고급인쇄용지 생산시 투입되는 BKP의 투입량을 20~30% 줄여 탈묵폐지로 대체하여 재생용지의 품질유지 및 제조원가 절감을 기할 수 있다고 한다.

**골판지 포장업계 지방거점 분산화 본격추진
삼성전자, 광주지역에 가전 전문단지 조성 계기**

삼성전자가 광주, 전남에 5천8백억원을 투자하여 부품에서 완제품까지 일관생산체제를 갖춘 가전제품 전문단지를 조성한다.

삼성전자는 지난 8일 광주에 연산 90만대 생산규모의 냉장고 공장 준공식에서 광주에 2002년까지 백색가전 중심의 전자단지를 조성한다는 전략을 발표했다.

아울러 이날 준공된 하남공단의 냉장고 공장에 3개 라인을 추가, 오는 97년부터는 생산능력을 연간 1백40만대로 늘리고 세탁기, 에어컨 공장을 추가로 설립해 하남공단의 1단지를 완제품 생산기지로 육성할 계획이다.

한편 이러한 전자제품산업의 광주, 전남지역 진출에 따라 경인지역 유수 골판지 포장업계의 지방거점 분산화

EDT사는 현재 효소를 이용한 탈묵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나, 고지에서 인쇄된 잉크를 효과적으로 포집하는 기술이 뒤져 화학연구소의 협력협정에 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 급속히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대영포장(주) <대표이사 김승무>는 전남 나주 소재 (주)호일을 통하여 전남지역 진출교두보 마련하여 왔으며, 태림포장공업(주) <대표이사 정동섭>은 하남공단에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생산설비 기중선정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으며, 제일산업(주) <대표이사 윤한중>는 전남 담양소재 한남수출포장(주)를 인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골판지 포장업계의 이러한 지방분산화 추세는 지방자치체 실시에 따른 지방화추세에 적극 대처하고, 제품의 부피산업성에 따른 운송 Cost절감을 위한 현지생산, 현지수송 경영전략차원인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일경기계 일본 사또기계와 기술개발 협력
합판지 및 허니콤보드의 수요증가 추세대응**

일경기계(주) <대표이사 김재경>는 지난 5. 29일부터 6. 1일까지 일본 사또기계를 방문하여 고성능 Flat Die Cutter개발 등에 대하여 상호협

력키로 협의하였다.

최근 골판지상자의 변형상자 수요증가 및 합판지(Solid Fiberboard)와 허니콤 Board 등의 Die Cutting 수

요증가 추세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 제작에서 판매에 이르는 제반사안에 대하여 적극 협력을 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사는 골판지포장 제조설비의 수출을 위주로 하여 왔으며, 지난 1월경에 Printer Slotter를 베트남에 수출하였고, 3월과 6월 싱가포르에 Die Cutter, NC Slitter Scorer를 수출하여 상반기에 100만불 수출실적을

달성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지에 300만불이상 수출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해진 이사는 「최근 일본엔고 영향으로 동남아지역으로 유입되는 일본 기계가격이 국내제품 대비 1.5배에서 2배이상으로 고가화 됨에 따라 일본과의 수출경쟁력을 갖출 수 있어, 동남아 및 중국 등지의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제일제당 등 식품업계 물류합리화 적극 추진 수송차량 공동이용 배송시스템 수립

제일제당, 미원, 해태제과 등 식품업계가 물류부문 합리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제품의 특성상 가격에 비해 부피가 큰 식품의 유통 Cost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물류센터 건설과 공동배송 등을 통해 물류비 절감과 효율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는 교통체증이 날로 심각해지고, 다품종 소량생산체제로 바뀜에 따라 물류합리화를 통한 원가절감이 절실했기 때문이다.

제일제당은 올해 수도권 및 중부권에 광역 배송센터를 건설하고 강릉, 안동 등에 지역배송센터를 확보키로 했으며, 지방회사들과 복합수송 시스템계약을 맺고 차량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신 물류 시스템을 도입했다.

대한제당과 삼양사 등 제당업체들은 재당협회를 중심으로 물류비용 절감을 위하여 제품수송차량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복합 수송 시스템을 수립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한국수출(주) 제지 슬러지 소각 신시스템 개발 소각열 초기공정에 회수 사용 20억원 절감

한국수출(주)국내외적으로 환경보전 시책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제지공장에서 발생하는 슬러지 등 협잡물(挾雜物)을 소각처리할 수 있는 소각 시스템이 개발되었다.

골판지원지 및 골판지상자를 일관

생산하고 있는 한국수출포장공업(주)(대표이사 허용삼)과 (주)대한 플랜트(대표이사 김삼식)가 공동개발한 이 시스템은 소각방법에서 유동상식과 스트카식을 절충한 방식으로 제지공장의 고지처리 초성과정에서 폐기

물 및 오니슬러지의 소각처리시 발열 에너지를 생산공정에 회수 공급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고 밝혔다.

지난 1년여 동안 6억원의 연구비를 투입하여 개발한 이 시스템은 폐비닐 처리용량이 월간 1,305 TON이고, 오니 슬러지의 경우 1,102 TON이며, 증기발생량은 연간 25,056 TON으로, 벙커-C유를 월간 1,750 kl 절감할 수 있어, 연간 약 20억원 정도의 원가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人事動靜】

◎ 성일포장

장동규 관리차장 ⇒ 관리부장
이성구 생산차장 ⇒ 생산부장

◎ 장 천

이형규 기획실과장 ⇒ 기획실차장

◎ 신대양제지

성단경 대리 입사

◎ 서릉산업

조병래 차장 ⇒ 부장

조성호 대리 ⇒ 과장

◎ 한은판지

자재부 (이홍용 과장 ⇒ 차장)

영업부 (이종근 과장 ⇒ 차장)

생산관리부 (주성평 대리 ⇒ 과장)

자재부 (가재현 계장 ⇒ 대리)

물류반 (민영택 반장 ⇒ 주임)

경리부 (박승수 주임 ⇒ 계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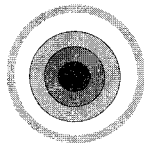
판지부3과 (권오창 대리 ⇒ 과장)

판지부 2과 (송재홍 주임 ⇒ 대리)

판지부 1과 (홍진섭 주임 ⇒ 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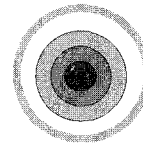
가공부 (황완주 대리 ⇒ 과장)

가공부 (현용혁 대리 ⇒ 과장)



News Review

● 海外·動向 ●



日本 瓦板紙 業界 東亞 進出 急増 海外企業 同伴, 國內 空洞化 對應

성숙기의 일본골판지 포장업체는 섬유산업, 전기기기 산업등의 해외 진출로 쫓고 속행에 따른 골판지포장 다사용 산업의 일본 국내 공동화 현상에 맞물려 골판지포장공장의 이들

해외 생산거점 공장과 동반하여 중국 및 동남아시아 대륙 진출이 급증하고 있다.

이는 이들 각국의 골판지포장공업 성장률이 동남아시아 전체로는 15%

전후, 중국은 연 20% 이상 성장이 예상되는데다 현지 진출 일본계 기업들의 고품질 골판지포장의 안정공급의 Needs가 높아짐에 따라 이미 11개사가 진출을 완료하였다.

그 중요한 진출기업은 령고, 모리지업, 도모꾸, 아사히, 고바시, 다와다지공, 곤포, 지요다컨테이너, 혼슈제

日本 海外 瓦板紙工場 投資現況

國 名	現 地 設 立 法 人 名	日 本 的 合 作 會 社
中 國	北京聯合印刷紙器有限公司 大連聯合包裝製品有限公司 大連三井森包裝有限公司 蘇州 昆寶包裝有限公司 上海聯合包裝有限公司 中山聯合鴻興造紙有限公司	령고, 東京丸一商事 령고, 伊藤忠商事 森紙業, 三井物産 곤포, 大丸興業, 三興製紙, 淺岡鐵工所 령고, 伊藤忠商事 령고
臺 灣	國際農工企業股彬 有限公司	本州製紙, 旭洋
인도네시아	P.T. Oriental Asahi Lyman Carton Box 사임·령고·컨테이너스社	도맹, 아사히 령고
말레이시아	사임·령고·패케이징·말레이시아社 지요다지공패케이징·엔지니어링 多和田紙品工業(馬)有限公司	령고 지요다 컨테이너 多和田紙工
타 이	타이·고바시 Likitomi(Thailand)Co.,LTD. 타이·컨테이너스社 타이·컨테이너스·인더스트리社 타이·컨테이너스·라자프리社 타이·기다하라	고바시 도모꾸 령고 령고 령고 北原紙器製作所
싱가포르	Kurofuchi Packaging Singapore Ltd. 사임·령고·패케이징·싱가포르社	三菱商事 게이마스, 도모꾸, 령고

지, 기다라하지기, 게이마스도모꾸 등이다. 이들은 대개 현지 자본과 합작투자형식이며, 골판지포장 메이커와 일본 종합상사와 합동으로 또는 종합상사가 합작하면서 골판지포장 메이커는 기술지도를 하는 방법등을 택하

고 있다. 주로 합작투자 진출국은 중국이 6개, 대만이 1개, 인도네시아 2개, 말레이시아 3개, 태국이 3개, 싱가포르가 2개등이다.

표는 일본 주요 골판지포장공장의 해외국별 합작투자 내용이다.

應福)과 홍콩의 흥형프린팅 그룹(홍콩 신계 대보 공단 소재 .대표 이사 任昌洪) 간의 삼자공동 출자로 골판지 원지제조 합작투자가 조인되었다.

Rengo는 이제까지 동남아시아 4개국과 중국에 골판지포장 제조공장 11개, 인쇄지기공장 1개 계 12개공장의 합작투자를 전개하였으나, 제지공장 합작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산연합 흥흥조지유한공사(中山聯合鴻興造紙有限公司) 로 불리우는 동합작제지 공장 규모는 자본금 2,883万 US \$, 출자비율은 Rengo 35%, 흥형프린팅 그룹 35%, 중산조지창 30%이다.

합작투자로 인하여 중산 조지창은 기존 및 신설개조되는 골심지 초지기 4대 및 라이너, 골심지 겸용 초지기 2대등으로 현재 연간 90,000M/T생산에서 150,000M/T규모로 증산하게 된다.

'95 日本 國際包裝 機械展 (Japan Pack '95)
테 마 「人間과 環境을 注視한 Technology」

[人間과 環境을 注視한 Technology]를 테마로 일본포장기계공업회 주최 제 19회 '95일본국제 포장기계전 Japan Pack '95가 95.10.16일부터 20일까지 일본 동경 하루미의 동경국제 전본사회장에서 개최된다.

금번의 Japan Pack '95의 전시규모는 출품사 수가 341사이며, 출품구간은 3,079소간으로 출품내역은 ▲포장기계 149사(1,801소간), ▲포장재료가공기계 12사(120소간), ▲포장자재 13사(69소간), 식품기계 52사(376소간), 관련기기 76사(383소간), 해외출품 36사(326소간), ▲기타 3사(6소간)규모이다.

동전시회는 3년 격년 개최의 독일의 Inter Pack, 격년개최의 미국의 Pack EXPO 및 3년격년 개최의 영국의 Pack EXPO와 더불어 세계 4대 포장기계전의 위치를 자리 매김하고 있는 최신기술이 결집되는 전시회이다.

**日本 Rengo 중국에 原紙工場 合作
 6 万 M/T 増産 資本金 2900万 \$, 3者 出資**

일본의 골판지포장 Top Maker인 Rengo(대표이사 하세가와 가오루)는 지난 95.3월말 중국 광둥성 중산시 소재 중산 조지창 (中山造紙廠 廠長陳

상 호 변경 안내

흥성종합상사 → 한국 포장디자인 개발센터

주소 :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면 노이3리 1261번지
 Tel: 053)616-0203
 FAX: 053)616-2283

농산물 박스설계, 포장디자인 기획, 농·공산품포장재 구매알של